

심리사회적요인과 은퇴 의사결정

서여주* · 주소현**

I. 서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가장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9년 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7%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로 높아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24년이 걸린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로 평가된다(김병덕, 2011). 이러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노년층의 수적 증가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 사회 전반의 활력, 개인의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사회, 경제적 위험요소의 기저에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나 고령 인구의 노동력 활용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주요 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Hardy, 2006), 우리나라 역시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정년연령과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부양의식 약화로 인해 중·고령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최현자·주소현·김민정·김현정, 2009).

일반적으로 은퇴는 가장 오래 머물던 주된 일자리(career job)를 완전하게 그만둔 상태를 의미하는데(Morse et al., 1983; Barfeild & Morgen, 1969; Gustman & Steinmeier, 2005), 실제로 우리나라 은퇴자의 경우 경제적 이유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완전히 은퇴하지 못하고, 만약 은퇴했다라도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즉 은퇴시기를 지연시켜 노후의 경제력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은퇴를 서서히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성지미·안주엽, 2006; 임영광, 2009; 조동훈, 2014). 이러한 원인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복지제도 축소의 구조적 변화(Esping-Andersen, 1990)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실업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성 감소, 해고 및 구조조정에 따른 재직기간 감소, 직업종사 기간 감소 등의 노동시장 조건들이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은퇴과정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Henretta, 1992). 또한 은퇴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성과 같은 객관적 상황 이외에도 개인이나 가계의 심리적 사회적 요소 등이 복잡하게 작용되어 나타날 수 있다(Fletcher et al, 1991).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교신저자)

그러므로 은퇴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점진적, 단계적, 복합적, 연속적 과정으로 파악한 국내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최문정, 2003; 지은정, 2006; 신동균, 2009; 홍백의·김혜연, 2010).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은퇴결정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요인이 검토되는데, 본 연구는 은퇴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주목하였다(Zaniboni, S., Sarchielli, G., & Fraccaroli, F., 2010).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인과 같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장수지, 2008).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감 혹은 역할전환(transition)의 정체성 위기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는 상대적 유인을 가진다(Henkens & Tazelaar, 1997).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House, Robbins & Metzner, 1982; Ward, 1985; 정경희, 1995), 은퇴 이후 잃어버린 역할을 비슷한 형태의 역할로 대체하여 일관된 행동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Havinghurst et al., 1968; Hooyman & Kiyak,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의사결정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재무적 특성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은퇴 의사결정 간의 영향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은퇴의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은퇴 의사결정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은퇴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2.1 은퇴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04년을 기점으로 은퇴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008년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은퇴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성영모 외, 2013).

먼저, 은퇴 의사결정에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연구들이 많은데 그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와 건강상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은퇴 의사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Streib & Schneider, 1971).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smette & Gaillard, 2008; Hausman & Wise, 1985; Kim & Feldman, 2000; Ross & Wu, 1995). 장지연(2003)은 은퇴 연령과 결정요인, 은퇴유형 등에 관한 연구 결과, 우리나라 은퇴연령은 높은 편이며, 연령 증가에 따라 은퇴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정도는 대상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령 증가에 따라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은퇴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Zappala, Depolo, Fraccaroli, Guglielmi, & Sarchielli (200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를 미루고자 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Kanfer et al. (2001)와 Adam & Rau(2004)의 연구에서는 고령의 여성근로자들은 고령의 남성 근로자 보다 은퇴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남성이 길고 은퇴이후의 삶의 준비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권승·황규선(2004)의 연구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를 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Lissenburgh & Smeaton(2003)은 노동시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은퇴이후 근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Ruhm(1990)과 Quinn & Richard(199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승렬과 최강식(2007), 김원섭과 우해봉(2008)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Han & Moen(1999)와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은퇴를 미루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은 일자리 이동도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은퇴과정에서도 전문직이나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ang, Zhan, Liu & Shultz(2008)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혼인상태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은퇴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Coil & Gruber(2004)와 Desmette and Gaillard(200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은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섭과 우해봉(2008)의 연구에서도 무배우남성이 유배우 남성에 비해 은퇴발생확률이 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Topa et al.(2009)와 Wang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나쁘면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인 권문일(1996), 최승현(2006), 이기주·석재은(2011)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소득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을 할 여력이 많아 가계자산의 축적수준을 높여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자산의 축적을 이루지 못하여 계속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다(Kim & DeVaney, 2005). 두 번째 견해는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가진 근로자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유사한 수준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yant, 1990; Honig, 1996; Kim & DeVaney, 2005에서 재인용; 이승렬 & 최강식, 2007). 또한 소득을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소득자의 경우 저소득자에 비해 근로를 중단하고 여가시간을 늘릴 경우의 기회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대체효과가 작용하여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자산이 많을수록 여가를 비롯한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은 순수한 소득효과를 통해 퇴직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권문일, 1996). 높은 수준의 자산과 낮은 수준의 부채는 여가시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가계자산을 가진 근로자는 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Bryant,1990; Hatcher,2002; Kim & DeVaney, 2005에서 재인용).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은 은퇴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 소유는 은퇴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은 은퇴자들에게 비근로소득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산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대체효과를 통해 그들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와는 달리 연금의 가입으로 인해 추가적 근로에 대한 조세부담이 생겨 이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떨어뜨리는 소득효과로 작용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완전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도 연금이 퇴직 후 근로를 지속할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Quinn(1996)의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미가입한 근로자보다 은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관적 경제상태의 경우에는 가구의 재무적 상황을 좋게 인식하면 조기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냈다(Desmette & Gaillard, 2008). 그러나 Zappala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 경우 조기은퇴보다는 은퇴를 늦추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은퇴 의사결정에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와 건강상태 같은 개인적인 특성과 소득, 자산, 연금, 부채와 같은 재무적인 특성의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제변인들을 통해 은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관계에 관한 은유적 진술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태는 선들에 의해서 연계되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Barns, 1977). 이후에 촘촘하게 짜여진(close-knit) 네트워크와 느슨하게 짜여진(loose-knit) 네트워크를 질적인 차원에서 대비시킴으로써 분석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Bott, 1977). 촘촘하게 짜여진(close-knit) 사회적 네트워크는 중심이 되는 에고(ego)와 네트워크 구성원간의 연계(상호 작용)를 나타내며, 이는 이후에 밀도(density)의 개념으로 조작적인 수량화가 가능하게 되었다(이철우·박상민, 1998).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연계의 행렬 또는 사람들 간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장’으로(Mayer, 1966) ‘보다 큰 사회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을 연계시키는 특수한 내용(의사소통관계, 권력관계, 정서적 관계, 교환관계)을 가진 일련의 사회적 관계들’(Emirbayer & Goodwin, 1994)로 이해된다. 또한 개인이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대인접촉을 의미하며 가족, 친구, 이웃, 조직의 구성원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Aartsenet al., 2004). 이러한 관계들은 잠재된 관계의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선택

되어진다. 즉, 사회적 관계는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며, 일생동안 상호간 역할에 따르며, 개인의 삶에 있어서 확립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유대감의 형성은 물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Doubova, 2010).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으로 유형화된다(정순돌 외, 2010; Doubova, 2010). 구조적 측면은 집단의 구성원의 수, 접촉 빈도, 개인 간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나타내며, 구성원과 전화, 편지, 방문 등을 통하여 관계형성의 특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Litwwin, 2001; Fiori, Smith & Antonucci, 2007). 즉 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양적인 측면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관계들의 유형, 네트워크의 크기 및 개인과 관계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인 등과 접촉 빈도와 같은 요소들이 중심이 된다(장수지, 2008). 이에 비해 기능적 측면은 상호교환적 입장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유형과 빈도에 대한 기능이 개인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가져다주는지를 나타낸다(Fiorietal, 2007). 다시 말해,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적인 부분으로, 네트워크 내의 사람들과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 및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은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은 아니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은 이 두 차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계보상모델(hierachical compensatory model)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성격에 상관없이, 개인이 보유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관계의 우선성, 친밀성, 책임감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자녀, 친족, 친구 등의 순서로 지원받을 대상을 위계적으로 선택한다. 특정과제모델(task specific model)에서는 개인이 선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원집단의 성격과 자신이 원하는 특정과제의 특성이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지원집단은 근접성, 관계지속기간, 라이프스타일, 동기, 노동 분업, 기술적 지식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Litwak, Messeri, Wolfe, Gorman, Silverstein, & Guilarte. 1989; 장수지, 2010 재인용). 필요한 과제의 특성과 이러한 지원집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대상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보호나 부양에 관련된 지원은 가족으로부터 받고, 정서적 지지는 친구로부터 받는 것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모델(social network model)은 개인이 유지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본다(Wellman & Wortley, 1990; 장수지, 2010 재인용).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내의 대인관계의 접촉빈도, 관계양의 밀도, 결속력, 네트워크의 크기 등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가 크고 네트워크 내 대인관계가 다양하며, 접촉이 잦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갖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주로 혈연관계로 구성되는지, 친구와 같은 비혈연관계로 구성되는지에 따라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인간의 생애 전체에 걸쳐 중요하지만, 중·고령자에 있어 특

히 더욱 중요하다(정경희, 1995; 정순돌, 2004). 중·고령자는 생애 단계에서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배우자, 친구와의 사별, 사회적 역할의 상실, 경제적 자원의 고갈 등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 때 주위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념을 유지할 수 있고, 실제적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모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네트워크 내의 관계들이 다양할수록, 그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기에 은퇴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박경숙(2000)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일차적 비공식 집단과 이차적 비공식 집단으로 구분하여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일차적 집단에는 자녀관계를, 이차적 집단에는 친구와 이웃뿐만 아니라 고령자회관,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참여빈도수를 활용하여 총 5가지 유형의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관계를 유형화 하는데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 접촉빈도와 같은 관측변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여 유형분류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희정(2011)은 사회적 관계망을 자녀와의 관계로 제한한 측면이 있지만, 관계유형의 변화를 잠재적 집단 분석을 통하여 관계유형 도출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한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조지용(2013)은 은퇴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범위로 부분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한 지역사회 중심의 이차적 사회집단과의 관계로 정의하여 은퇴시점 전후에 따른 사회적 관계 유형의 변화를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Aartsen et al.(2004)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친족관계 구성비율, 친구 수, 이웃관계 구성비율을 관측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유형을 계층화하였다. Fiori, Smits & Antonucci(2007)은 베를린고령화연구(Berlin Aging Study)데이터를 활용하여 70~85세 이상까지의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의 중·고령 및 노령계층의 사회적 관계유형을 앞서 언급한 2006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관계유형을 가설로 설정하여 구조적 측면의 변인, 기능적 측면의 변인 및 관계의 질 측면의 변인을 관측하여 잠재집단을 유형화 하였다. Litwin(2001)은 이스라엘 인구통계국 인구센서스 1997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고령자의 다섯 가지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하였는데, 다양한 관계유형, 친구 중심 관계유형, 이웃(지역사회)중심 관계유형, 이웃 중심 관계유형, 제한된 관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크게 배우자와의 관계, 세대 간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이외의 이차적 집단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은퇴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의 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재무적,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재무적,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재무적,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은퇴계획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하는 한국고령화패널연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고령화 패널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횡단면 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노동공급 및 은퇴, 소득과 소비형태, 건강, 사회보장제도 수혜 등에 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확보하여 정부의 중·고령층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3). 2006년부터 2년마다 진행이 되는 고령화연구패널연구의 모집단은 2006년 기준 45세 이상 제주도를 제외한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2006년 10,254명의 패널이 구축되었고, 2008년 제 2차 조사에서는 이중 8,688명의 패널이 유지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0). 2010년에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7,920명, 2012년에 실시한 4차 조사에서는 7,486명을 조사하여 완료하였다. 주요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A)기본정보, (B)가족정보, (C)건강정보, (D)고용정보, (E) 소득과 소비관련 정보, (F)자산정보, (G)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에 관련한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패널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2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부득이하게 횡단적(cross-sectional)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조사의 응답을 기준으로 가구주 응답자만을 추출하였으며,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인 없다”고 밝힌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은퇴자 가계, 비은퇴자 가계, 구직자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적 특성을 비교하여 은퇴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변수값)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세)
	성별	1.남성 0.여성
	학력	0.초졸 1.중졸 2.고졸 3.대졸이상
	배우자	1.혼인중 0. 이혼 및 사별, 기타
	주관적건강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은편 5. 매우 좋음
재무적 특성	지난해 가구 총소득	(만원)
	금융자산(현금및예금)	1. 예 0. 아니오
	금융자산(저축성예금)	1. 예 0. 아니오
	금융자산(저축성보험)	1. 예 0. 아니오
	부채여부	1. 예 0. 아니오
	연금수급여부	1. 예 0. 아니오
	거주주택여부	1. 자가 2. 전세 3.월세 및 기타 (범주형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처리)
	주택이외부동산소유여부	1. 예, 0. 아니오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주관적 경제상태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은편 5. 매우 좋음
	생존자녀수	(명)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1. 높다 0. 낮다 (80점 기준)
	자녀와의대면접촉수준	1. 높다, 0. 낮다 (일주일 1회 이상: 기준)
	자녀와의비대면접촉수준	1. 높다, 0. 낮다 (일주일 1회 이상: 기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1. 높다, 0. 낮다 (80점 기준)
	친한사람과의 접촉수준	1. 높다, 0. 낮다 (일주일 1회 이상: 기준)
	모임참여 수	(수)
	참여모임유무	1. 참여모임 없음 0. 참여모임 있음
	종교모임접촉수준	1. 높다 0. 낮다 (일주일 1회 이상: 기준)
	친목모임접촉수준	1. 높다 0. 낮다 (일주일 1회 이상: 기준)

IV. 연구의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 2012년 가구주 응답자를 기준으로 가구주의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중인 자의 가계 3,147가구를 분석하였다. <표 2>에 가계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비은퇴자 가계와 구직중인 자의 가계와 함께 비교하였다.

은퇴자가계의 평균 연령은 72.63세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남성가구주가 약간 더 많았다(50.7%). 이에 비해 비은퇴자 가계의 평균 연령은 62.14세로 은퇴자 가계보다 낮았으며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59%로 더 많았다. 또한 구직자가계의 평균 연령은 62.43세로 은퇴자 가계보다는 낮았지만, 비은퇴자의 가계보다는 약간

높았다. 그러나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52.1%로 다른 가계와 비교하여 많았다. 은퇴자가계의 학력은 초졸 이하인 경우가 많았으며(56.9%), 비은퇴자의 가계 또한 초졸 이하의 학력의 비율이 3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직자 가계의 학력은 고졸이상인 경우가 35.4%로 가장 많았다. 은퇴자가계와 구직자가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각각 64.2%와 64.6%에 비해 비은퇴자 가계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78.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은퇴자가계와 비은퇴자 가계는 기타지역에 살고 있는 비율이 각각 40.2%와 50.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구직자가계는 서울·경기지역에 가장 높은 비율(36.8%)로 거주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감에 대한 척도에 있어서 비은퇴자 가계가 3.25점으로 가장 높았고, 구직자가계 3.1점, 은퇴자가계 2.63점으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은퇴자가계의 총소득은 1,709만원으로 비은퇴자 가계의 경우 3,021만원에 비해 소득이 매우 낮으며, 구직자가계 총소득 2,029만원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은퇴자 가계의 경우 55.6%가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은퇴자 가계와 구직자 가계는 각각 58.1%와 59%의 비율로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저축성 예금의 보유 여부와 저축성 보험의 보유 여부에 있어서도 모든 가계에서 높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부채 역시도 모든 가계에서 높은 비율로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구직자가계가 15.3%로 다른 가계와 비교하여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연금수급여부에 있어서도 모든 가계에서 높은 비율로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은퇴자가계가 33.1%로 다른 가계에 비해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거점유유형에 있어서는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은퇴자가계의 경우 7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은퇴자 가계의 경우에도 82.8%의 비율로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직자 가계 역시도 70.1%의 비율로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거주주택의 부동산자산소유 여부에 있어서는 비은퇴자 가계가 34.4%의 비율로 다른 가계에 비해 높았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척도에 있어서 비은퇴자 가계가 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은퇴자가계 2.75점, 구직자 가계 2.49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존자녀수에 있어서는 은퇴자가계는 3.34명, 비은퇴자 가계는 2.73명, 구직자 가계는 2.49명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모든 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은퇴자 가계의 경우 68.2%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 가계에서 자녀관계의 만족도, 자녀와의 대면접촉수준, 자녀와의 비대면 접촉수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한 사람과의 높은 접촉수준을 가지는 은퇴자 가계는 71.3%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비은퇴자 가계 69.1%, 구직자 가계 54.9% 비율로 나타났다.

노후지원에 대한 기대감에 관해서는 비은퇴자 가계가 2.51점, 은퇴자 가계 2.42점, 구직자 가계 2.35점으로 나타났다. 참여모임여부는 은퇴자 가계에서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 경우가 70.7%로 참여하지 않는 모임의 비율 29.3%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비은퇴자 가계와

구직자 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2>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 가계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구분	변수	은퇴자(N=1407)		비은퇴자(N=1596)		구직자(N=144)		F/χ²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연령(세, SD)	72.63	8.89	62.14	8.506	62.43	7.583	570.952***		
	가구주 성별	남성	714	50.7	941	59.0	69	47.9	11.694***	
		여성	693	49.3	655	41.0	75	52.1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801	56.9	596	37.3	42	29.2	46.852***	
		중졸	188	13.4	293	18.4	34	23.6		
		고졸	270	19.2	509	31.9	51	35.4		
		대학이상	148	10.5	198	12.4	17	11.8		
	혼인상태	배우자있음	903	64.2	1247	78.1	93	64.6	18.792***	
		이혼및사별	446	31.7	241	15.1	31	21.5		
	기타	58	4.1	108	6.8	20	13.9			
주관적건강감(5점 척도, SD)		2.63	.886	3.25	.792	3.10	.778	206.221***		
재무적 특성	가계총소득(만원, SD)	1708.75	1922.78	3020.51	2823.683	2029.10	1627.805	124.022***		
	현금 및 예금 보유여부	예	590	41.9	888	55.6	59	41.0	30.532***	
		아니오	817	58.1	708	44.4	85	59.0		
	저축성 예금 보유여부	예	114	8.1	172	10.8	15	10.4	3.159*	
		아니오	1293	91.9	1424	89.2	129	89.6		
	저축성 보험 보유여부	예	22	1.6	130	8.1	5	3.5	35.278***	
		아니오	1385	98.4	1466	91.9	139	96.5		
	부채여부	부채 있음	110	7.8	221	13.8	22	15.3	15.024***	
		부채 없음	1297	92.2	1375	86.2	122	84.7		
	연금수급여부	연금수급함	466	33.1	350	21.9	29	20.1	25.965***	
		연금수급하지않음	941	66.9	1246	78.1	115	79.9		
	주거점유 유형	자가	1116	79.3	1322	82.8	101	70.1	8.254***	
		전세	141	10.0	130	8.1	18	12.5		
		월세 및 기타	150	10.7	144	9.0	25	17.4		
		부동산소유여부 (주택 제외)	있음	315	22.4	549	34.4	20		13.9
	없음	1092	77.6	1047	65.6	124	86.1	34.962***		
	주관적경제상태(5점 척도, SD)		2.75	1.085	3.17	.948	2.49	1.038	80.274***	
	사회적 네트 워크 특성	생존자녀수(명, SD)	3.34	1.607	2.73	1.353	2.49	1.134	72.411***	
자녀와의 동거여부		예	404	28.7	683	56.2	60	44.1	33.144***	
		아니오	959	68.2	876	43.8	76	55.9		
자녀관계 만족도		높다	379	37.2	514	45.3	30	30.9	9.539***	
		낮다	640	62.8	620	54.7	67	69.1		
자녀와의 대면접촉수준		높다	294	20.9	247	15.5	19	13.2	8.637***	
		낮다	1113	79.1	1349	84.5	125	86.8		
자녀와의 비대면접촉수준		높다	691	49.1	668	41.9	64	44.4	8.0***	
		낮다	716	50.9	928	58.1	80	55.6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높다	308	34.1	514	41.2	34	36.6	5.748**	
		낮다	596	65.9	733	58.8	59	63.4		
친한사람과의 접촉수준		높다	1003	71.3	1103	69.1	79	54.9	8.418***	
		낮다	404	28.7	493	30.9	65	45.1		
모임참여 수 (개수, SD)		1.218	.497	1.2951	.57753	1.2361	0.6476	7.520**		
참여모임여부		있다	995	70.7	1301	81.5	104	72.2	25.136***	
		없다	412	29.3	295	18.5	40	27.8		
		종교모임 접촉수준	높다	505	50.8	384	29.5	40	38.5	56.031***
			낮다	490	49.2	917	70.5	64	61.5	
		친목모임 접촉수준	높다	76	29.1	55	14.1	7	29.2	11.683***
			낮다	185	70.9	334	85.9	17	70.8	

주)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은퇴여부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은퇴자를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비은퇴자, 구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였다.

<표 3>의 분석결과,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은퇴자와 비교할 때, 연령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 초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 건강상태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은퇴자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무적 특성 중 지난해 소득이 많았던 경우,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채가 없는 경우,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 경제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은퇴자일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중 생존자녀수가 많은 경우,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가 높은 경우에도 비은퇴자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은퇴한 경우와 비교한 결과, 연령이 낮고, 고졸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주관적 건강감이 높은 경우 구직중인 확률이 높았다. 또한 소득이 낮고, 부채가 없는 경우 구직중인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낮다고 여기는 경우 은퇴자와 대비하여 구직중일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가 낮을수록 은퇴에 비하여 구직중일 확률이 높았다.

비은퇴자와 구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앞서 논의된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현재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특성이 은퇴계획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귀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와 관련 요인 분석 (N=5553)					
변수		은퇴여부(기준=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	
		b	Exp(B)	b	Exp(B)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142***	.867	-.122***	.885
	성별(남성=1)	-.917***	.400	-.273	.761
	종졸	.367***	1.444	-.315	.730
	고졸	.489***	1.630	-.548**	.578
	대졸이상	1.095***	2.991	-.055	.947
	혼인중	.168	1.182	.118	1.126
	주관적 건강상태	.403***	1.496	.248**	1.281
재무적 특성	소득/100	.007***	1.007	-.017***	.983
	현금예금보유여부	-.165*	.848	-.031	.970
	저축성예금보유여부	.222	1.248	-.285	.752
	저축성보험보유여부	-.281	.755	.252	1.287
	부채유무	-.363**	.695	-.452*	.636
	연금수급여부	.305***	1.357	.268	1.308
	자가 거주	.184	1.202	.356	1.428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전세 거주	.206	1.228	.135	1.145
	거주주택외부동산자산소유여부	-.657***	.518	.098	1.103
	주관적 경제상태	.407***	1.502	-.230**	.794
	생존자녀수	.138***	1.148	.048	1.049
	자녀만남빈도	.149	1.161	.275	1.316
	자녀연락빈도	-.075	.928	.025	1.025
	참여하고 있는 모임 수	-.117	.890	.029	1.030
	친한 사람과의 만남빈도	.130***	1.139	-.186**	.830
	$\chi^2=2166.625***$ (df=44), Pseudo R²=.395				
	주) *p<.05 **p<.01 ***p<.001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대졸이상인 경우, 지난해 소득이 높았을수록, 저축성 예금과 저축성 보험을 보유한 경우, 은퇴계획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 유형에 비하여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은퇴계획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수가 많을수록,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가 높을수록 은퇴계획연령이 낮아지는 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은퇴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은퇴계획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213)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B	베타		
(상수)		41.389		5.642	.000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2012-A002y)	-.161	-.039	-1.556	.120
	응답자 성별	.580	.009	.445	.656
	중졸더미	.213	.003	.120	.905
	고졸더미	1.439	.021	.859	.390
	대졸더미	4.980	.051	2.204*	.028
	혼인중	-1.289	-.013	-.726	.468
	주관적 건강상태	1.060	.027	1.410	.158
재무적 특성	소득/100	.087	.069	3.338**	.001
	현금예금보유여부	-3.076	-.046	-2.537*	.011
	저축성예금보유여부	8.410	.081	4.447***	.000
	저축성보험보유여부	4.645	.038	2.095*	.036
	부채유무	-1.596	-.017	-.967	.333
	연금수급여부	1.157	.014	.741	.459
	자가거주	-1.197	-.014	-.586	.558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전세거주	-6.186	-.052	-2.290*	.022
	거주주택외부동산자산소유여부	-6.051	-.085	-4.638***	.000
	생존자녀수	.101	.004	.173	.862
	자녀만남빈도	-1.468	-.016	-.841	.401
	자녀연락빈도	1.423	.021	1.096	.273
	참여하고 있는 모임 수	-3.194	-.054	-2.952**	.003
	친한 사람과의 만남빈도	-3.287	-.101	-5.583***	.000
		R ² =.063 F=9.827***			
주) *p<.05 **p<.01 ***p<.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제 4차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 중 가구주를 대상으로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변수 중 어떠한 요인이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특성이 은퇴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여부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은퇴자 가계, 비은퇴자 가계, 구직자 가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재무적 특성 변수인 가계총소득, 현금 및 예금 보유여부, 저축성예금 보유여부, 저축성 보험 보유여부, 부채여부, 연금수급 여부, 주거점유 유형, 주택제외한 부동산 소유여부,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적 특성인 생존자녀수와 자녀와의 동거여부,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와의 대면·비대면접촉수준,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친한사람과의 접촉수준, 모임 참여 수, 종교모임 및 친목모임 접촉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재무적,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변수가 은퇴자, 비은퇴자, 구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은퇴자와 비교한 결과, 연령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 초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 건강상태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은퇴자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무적 특성 중 지난해 소득이 많았던 경우,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채가 없는 경우,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 경제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비은퇴자일 확률이 높았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중 생존자녀 수가 많은 경우, 친한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많은 경우에 비은퇴자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퇴자에 비하여 연령이 낮고, 고졸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주관적 건강감이 높은 경우 구직중인 확률이 높았다. 또한 소득이 낮고, 부채가 없는 경우 구직중인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낮다고 여기는 경우 은퇴자와 대비하여 구직중일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 중에서는 친한 사람과의 만나는 빈도가 낮을수록 은퇴에 비하여 구직중일 확률이 높았다.

종합해보면, 비은퇴자와 구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통적으로 연령과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부채유무, 거주주택의 부동산소유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인 친한 사람과의 만남 횟수 역시 주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비은퇴자와 구직자 간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는 네트워크가 갖는 기능과 내용에 선행하기도 하고, 요구되는 기능에 맞춰 대인관계를 선택하는 등 기능이 구조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장수지, 2008). 따

라서 개인이 유지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oor(1990)의 연구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비친척 네트워크 크기가 더 크며, 전체 사회적 네트워크 중 비친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비은퇴자가 구직자에 비해 네트워크의 크기와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본 연구결과를 일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특성이 은퇴계획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대졸이상인 경우, 지난해 소득이 높았을수록, 저축성 예금과 저축성 보험을 보유한 경우 은퇴계획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 유형에 비하여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은퇴계획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수가 많을수록, 친한 사람과의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은퇴계획연령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은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은퇴 의사결정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 은퇴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은퇴 의사결정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여 은퇴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은퇴유형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문일(1996), 노인의 퇴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권승, 황규선(2004), 노년층의 은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24(3), 69-90.
- 김병덕(2011),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적 정책과제, 주택금융6월보, 2-19.
- 김연주, 차경옥(2008), 완전은퇴와 부분은퇴 집단의 특성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3), pp. 59-79.
- 박경숙(2000),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한국사회학, 34(3), 621-64
- 박경숙(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성지미, 안주엽(2006),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신동균(2009),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9(2), 1-41.
- 유희정(2011), 노년기 자녀와의 관계유형에 관한 종단연구(1):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87-111.
- 이승렬, 최강식(2007), 국민연금의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3(4), 83-103.
- 이재열(1998), 한국인의 연금망 : 사회의식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학회 대회 발표문 요약집, 187-200
- 이철우, 박상민(1998), 사회적 연결망의 연구동향과 공간적 함의, 사회과학, 10, 163-194.
- 임영관(2009), 은퇴결정요인과 은퇴후 소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동욱(2008),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8(3), 17-38.
- 장수지(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 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 장지연(2003),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 52-68.
- 정순돌(2004),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특성; 연결고리의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29.
- 조동훈(2014), 정년제도와 중고령자 은퇴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37(3), 101-122.
- 조지용(2013), 퇴직자의 사회적 관계유형 분류 및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종단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은정(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 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58(3), 135-168

- 최문정(2005), 고령근로자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 주된 일자리와 은퇴과정계층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현정(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pp. 189-214.
- 홍백의, 김혜연(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Aarsen, M., van Tilburg, Smits, H. M., and Kinscher, K.(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Physical and Cognitive Decline on the Personal Network in Old 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50-266
- Adams, G., & Rau, B. (2004). Job seeking among retirees seeking bridge employment. Personnel Psychology, 57(3), 719-744.
- Barfield, R., & Morgan, J. (1969). Early Retirement: The Decision and the Experience.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onsequences for quality of life in retir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105-1210.
- Desmette, D., & Gaillard, M. (2008). When a “worker” becomes an “older worker”: The effects of age-related social identity on attitudes towards retirement & work.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2), 168-185.
- Dobova, S., Perez-Cuevas, Espinosa-Alarcon, P., and Flores-Hernandez, S. (2010), Social Network Types and Functional Dependency in Older Adults in Mexico, BMC Public Health 10, 147-153.
- Fiori, K. L., Smith, J. and Antonucci, T. C. (2007), Social Network Types Among Older Adult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62(6), 322-330.
- Fletcher. W. L., & Hansson. R. O. (1991). Assessing the Social Components of Retirement Anxiety. Psychology and Aging, 6, pp. 76-85.
- Gustman, A.L. & Steinmeier, T. L.(2005), The Social Security Early Entitlement Age in a Structural Model of Retirement Weal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2-3), 441-463.
- Hardy, M.(2006). Older workers. In Robert H. Binstock & Linda K.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6th edition(pp. 201-218). London:

- Academic Press.
- Hardy, M.A. and Quadagno, J. (1995), "Satisfaction with early retirement: making choices in the auto industr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50 No. 4, pp. 217-28.
- Henkens, K. and Tazelaar, F. (1997), "Explaining retirement decisions of civil servants in The Netherlands: intentions, behavior, an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wo", *Research on Aging*, Vol. 19 No. 2, pp. 139-73.
- Henretta, J(1992), *Uniniformity and diversith: Life course institutionalization and late life exit*, *Sociological Quarterly*, 33, 265-279.
- Kim, H. & DeVaney, S. A. (2005). The selection of partial or full retirement by older work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6(3), 371-394.
- Kim, S., & Feldman, D. C. (2000). Working in retirement: The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nd its
- Kim, S., & Feldman, D. C. (2000). Working in retirement: The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nd its consequences for quality of life in retir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105-1210.
- Litwin, H(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4), 516-524.
- Loi, J.L.P. and Shultz, K.S. (2007), "Why older adults seek employment: differing motivations among subgroup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26 No. 3, pp. 274-89.
- Moor, G. (1990), "Structural Determinates of Men's Women's Personal Network." *American Sociology Review* 55.
- Preacher, K., & Hayes, A. (2010). Quantifying and tes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when the constituent paths are nonlinea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5(4).
- Quick, H. E., & Moen, P. (1998), Gender, employment, and retirement quality: A life course approach to the differential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3, pp.44-64
- Quinn, J. F(1996), *The Role of Bridge Jobs in the Retirement Patterns of Older Americans in the 1990s*.
- Topa, G., Moriano, J. A., Depolo, M., Alcover, C. M., & Morales, J. F. (2009). Antecedants and consequences of retirement planning & decision-making: A meta-analysis and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1), 38-55.
- Wanberg, C., Kanfer, R. and Rotundo, M. (1999), "Unemployed individuals: motives, job-search competencies, and job-search constraints as predictors of job seeking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4 No. 6, pp. 897-910.
- Wang, M., Zhan, Y., Liu, S., & Shultz, K. S. (2008).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4), 818-820.
- Zaniboni, S., Sarchielli, G., & Fraccaroli, F. (2010). How are the psychosocial factors related to retirement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31(3), 271-285.
- Zappala, S., Depolo, M., Fraccaroli, F., Guglielmi, D., & Sarchielli, G. (2008). Early retirement as withdrawal behavior: Postponing job retirement? Psychosocial influences on the preferences for early or late retirement.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2), 150-167.